

미학으로 본 망진과 동서양의 관상학

사공희찬¹ · 황치혁¹ · 김병수¹ · 김경신^{1*}

The Inspection and Physiognomy on the Viewpoint in Aesthetic

Sagong Hee-chan¹ · Hwang Chi-Hyuk¹ · Kim Byoung-Soo¹ · Kim Kyoung-Shin^{1*}

¹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humans has tried to investigate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of all phenomena through the eyes.

In oriental medicine, inspection is a one way of diagnosing by observing outer shape of patients.

Physiognomy is the study which infers characteristics, constitutions, predestinations of one man from his appearance. In other words, the study is about how inner spirit is expressed in the appearance and how we could understand the inner side from appearance.

According to it, shapes, proportions and balances of human appearance also reflect the unrecognized characteristics of human. Esthetical beauty is product of seeing, it is considered with judgment of human just like beauty or ugliness, right or wrong, good and bad. In the east, they consider that the beauty is balance of nature, and that balance and harmony is important at human's face.

For such a reason, the highest beauty has ideal as agreement ethical and aesthetic level through the harmony of ethical and physical beauty. And Physiognomy and inspection are the same as it.

Keyword : Physiognomy (관상학), Aesthetic (미학), Inspection (망진)

I. 서론

동양에서는 시선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현상에 대해 그 근원적 관계를 탐구하려 하였다. 특히 한의학의 망진(望診)은 겉으로 드러나는 환자의 형상을 관찰함으로써, 환자 내부의 질병을 알아보는 진단법으로 한의학 최고의 원전인 『黃帝內經』에서 이미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였으며, 겉을 살피어 그 색을 보고 환자의 병을 알면 명의라 하여 최고의 의사로 비추고 있다¹⁾. 인체의 외형을 통해 사람 내적인 부분을 유추하는 것은 관상

학과 그 방법과 해석에 있어서 많은 점을 함께한다. 관상이란 외형적 생김새를 통해 한 사람의 성격, 체질, 운명을 추론하는 학문이다. 이렇듯 관상학(觀相學)은 외모의 구성, 특히 얼굴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입술의 문양, 눈 코의 모양 등 한 사람의 면상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과 건강상태 나아가 길흉화복 등을 예견할 수 있다. 즉, 인간 내면의 정신상태가 외부로 표출되는 모습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와 같이 망진과 관상학은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보다 깊은 내면적 성질과 체질 또는 질병까지도 판단하고 그 근원과 분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에 있어서 그 특징과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진리성, 윤리성과 아름다움에 관련해 시각의 진

* 교신저자 : 김경신, 대전대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 kkshin@dju.kr

투고일 : 2013년 1월19일 확정일 : 2013년 2월4일

1) 김경철, 이용태. 내경에 나타난 국소 부분 망진에 대한 연구. 동의한의연구 4:39-58, 2000.

정한 본성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관상학에 있어 그 판단 근거의 근원을 미의 관점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동서양의 관상학을 통하여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별하고 미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II. 본 론

동서양의 관상학

관상학의 기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을 알기 위한 지혜를 터득하는 방편으로 생성 발전하였다. 인간 그 자체를 알고자 하는 것이 관상의 기원이라 할 것이다²⁾. 동양에서의 관상학은 사람의 면상, 골격, 체형 따위의 생리형태와 사람의 신능(神能), 성기(聲氣) 거지(擧止) 따위를 분별하여 관찰하는 것으로 사람의 수명, 귀천, 길 흉, 화복을 추단하는 방법이다³⁾. 동양의 관상학은 인간이 오랜 시간과 경험에 의해 터득한 지혜를 비공식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 온 다른 점복술(占卜術)과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관상학의 기원은 東周時代(BC 770-BC 256) 내사벼슬을 한 叔服이 상법을 처음으로 개창한다. 叔服은 관상학의 泰斗로서 천문지리와 풍수에 능한 학자였으며, 魯나라 문공 14년에 星卦가 북두칠성을 침범한 현상을 보고 戰國時代가 열릴 것을 예언 하였으며 관상학의 시조로 등장하게 된다. 관상학의 발전과정에서 제1대의 觀相家로는 叔服이며, 그 뒤를 이어 姑布子가 제2대 관상가이다. 叔服과 姑布子까지는 骨相이 관상학의 전부였으나 시간이 흘러 제3대 관상가인 초나라의 唐學에 이르러서는 氣色으로 광상보는 법을 창안하여 광상학을 체계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 唐學은 『史記』 「范雎·蔡澤列傳」에 의하면 蔡澤(蔡澤)의 상을 본 것이 수록되

어 있다. 또한 이 시기의 相術家로서 후주의 王朴을 들 수 있다. 관상학의 변화과정을 보면 중국의 夏나라를 건국한 堯舜임금은 인재를 등용할 때 관상학을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大載禮記』 「少閑」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 요 임금은 용모로써 사람을 취했고, 순임금은 기색으로 사람을 취했으며, 우왕은 말씨로써 사람을 취했고, 탕왕은 음성으로 사람을 취했고, 문왕은 기량과 도량으로 사람을 취했다’. 라고 전해진다. 이는 상고의 堯舜 두 제왕 이후 夏商周 삼대의 군주는 인물의 형태·안색·언어·소리·품격을 통해 인재를 선정하였다는 뜻이다⁴⁾.

동양 관상학의 정립은 송나라 초기에 마의선사가 창안한 『麻衣相法』과 함께 『達磨相法』이 이대상전(二大相典)으로 알려져 있다. 달마상법은 남북조 시대에 남인도(南印度)에서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들어와 후세에 전하였다. 『麻衣相法』의 저자인 麻衣禪師는 송나라시대 相術에 밝았던 인물로 陣搏의 스승이다. 陣搏은 관상학에 뜻을 두고서 麻衣禪師로부터 관상학을 비전으로 전수받아, 관상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相理術眞』과 『神相全編』이라는 관상서를 발간하였다. 麻衣禪師는 중국의 고대로부터 전래되어 온 周易의 상수역학과 道家·佛家の 비전을 익혔으며, 그의 역학을 ‘麻衣易’이라고 하며 太極圖와 주역의 근원을 밝히는 각종 易圖들이 포함되어 있다. 『麻衣相法』은 총 5편으로 제1편은 총론으로 觀人八法, 十三部位總要圖, 流年運氣部位圖, 十二宮, 顏面分類, 五行論, 形·神·氣·性으로 되었으며, 제2편은 각론으로 骨相·肉相·머리·이마·얼굴·눈·코·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편은 石室神異賦, 金鎖訣로 이루어져있으며, 제4편은 상형기색부로 總論·吉氣·凶氣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5편은 달마조사의 상경 비전으로 相의 다섯 가지 법, 十二宮, 氣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동양에서 관상을 보는 방법론은 먼저 기색을

2) 김정현.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 서울, 동학사, pp.22-25, 1999.

3) 王浩, 구중희 옮김. 역리학의 이해. 서울, 상명출판사, pp.251-253, 2006.

4) 王浩, 구중희 옮김. 역리학의 이해. 서울, 상명출판사, pp.331-334, 2006.

5) 최화정. 『마의상법』의 이론적 고찰 : 마의상법의 석실 신이부, 금쇄부, 은시가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08.

살핀 후 음성을 듣고, 신의 동태를 관찰하고 살결 등 용모를 살피는 원칙으로⁶⁾ 관상의 중심은 얼굴이며 신체의 상(相)은 얼굴, 뼈, 손, 눈, 눈썹, 이마, 코, 입, 귀, 가슴, 발, 배, 배꼽, 모발 등으로 나뉜다. 사람의 연령과 출생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오형을 구분한 다음 오관(五官), 오악(五嶽), 삼부(三府), 삼정(三停)을 중심으로 보며, 또 삼재(三才), 오성(五星), 육요(六曜), 십이궁(十二宮), 사학당(四學堂), 팔학당(八學堂)을 살펴본다⁷⁾. 이렇듯 동양의 관상은 사람의 형상과 기색을 보게 하고 태어난 해와 달을 참고토록 했는데 이것은 관상과 사주를 따로 구별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단지 얼굴 형태만의 아닌 안색·언어·소리·품격 등 감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두 정보를 이용한다. 이와 같이 『麻衣相法』에는 ‘무릇 相이란 차라리 神이 충만하고 생김새가 모자랄지라도 형체만 그럴 듯 하게 생기고 神이 모자란 것은 좋지 못하다⁸⁾’ 하여 얼굴의 형태만을 척도로 삼지 않았으며, 그 사람의 마음씨와 정신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에서의 관상학(Physiognomy)이란 원어는 그리스어 자연(Physis) 법칙(Nomos) 그리고 판단 또는 해석(Gnomon)의 조합에서 나온 것으로, 이에 따르면 서양에서의 관상학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의 법칙(Law of nature)으로 해석될 수 있다⁹⁾. 특히, 중세의 관상학서는 고대 그리스 관상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천문학을 광범위하게 수용하여 성격과 운명을 점치는 것이었다¹⁰⁾. 외양에 철학적 해석을 가하는 관상학(觀相學)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왕과 왕자들의 교육에 왕이 알아야 하는 관상이란 사회라는 틀 안에서 바람

직한 성품을 외양을 통해 판단하는 것으로, 사회적 목적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교육사에서 보여지는 관상학적 지침에는 외양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체질'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타고난 '체질' 뿐 만 아니라 건강의 관리와 상태를 측정하는 육체적 징후들에 관하여 많은 첨가가 이루어졌다¹¹⁾.

인간의 얼굴과 신체를 살펴 그의 성격과 운명을 알아내고자 하는 시도인 관상학은 서양에서도 시기마다 다양하게 변형되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¹²⁾ 특히, 18세기의 독일의 관상학은 다양한 기호론적, 매체론적 구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의(signified)/기표(signifier), 텍스트/이미지, 원본/사본, 육체/정신, 가시성/불가시성 등의 차이들을 둘러싸고 형성된 구상들은 나타난다¹³⁾. 18세기 관상학은 신학자이자 인상학자인 라바터(Johann Kaspar Lavater, 1741~1801)의 4권으로 된 사람들의 인식과 인류애의 촉진에 대한 인상학 소고 'Physiognomische Fragmente zur Beförderung der Menschenkenntnis und Menschenliebe'에서 그는 다양한 얼굴과 실루엣을 제시하고 분석한다¹⁴⁾. 라바터는 관상학을 '학문중의 학문으로 인간의 외면을 통해 내면을 인식하는 것이다'¹⁵⁾으로 안과 밖의 명확한 구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모든 관상학적 고찰 요소들은 이러한 본질적 구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자연의 가시적 영역인 표면, 육체, 작용의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직접적인 시선을 벗어나는 내용, 정신, 힘이 숨어있으며 구체적인 관상학 연구를 통하여 표면은 인간의 생김새 즉 비례, 윤곽, 조화를 가리키며 내용은 직접적으

6) 진희이 저, 최인영 역. 麻衣相法. 서울, 상원문화사, p.332, 2010. [石室神異賦] : 要之 一辨其色 次聽其聲 更察其神 再觀其形 筋骨紋絡 其次也
7)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著, 김희경 譯. 朝鮮의 占卜과 豫言. 서울, 동문선, pp.49-66, 1991.
8) 진희이 저, 최인영 역. 麻衣相法. 서울, 상원문화사, p.282, 2010. [神相全編(卷四)] : 凡相寧可神有餘而形不足 不可形有餘而神不足也
9) 설혜심.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 서울, 한길사, pp.52-56, 2002.
10) 설혜심. 16.17세기 영국 관상학의 사회적 기능과 변천. 역사민속학 7:207-226, 1998.

11) 설혜심.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 서울, 한길사, pp.102-105, 2002.
12) 설혜심.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 서울, 한길사, pp.110-112, 2002.
13) 한철. 얼굴과 문자 -18세기 독일 관상학의 기호론적 구상들. 독일어문학 44:201-223, 2009.
14) 한철. 얼굴과 문자 -18세기 독일 관상학의 기호론적 구상들. 독일어문학 44:201-223, 2009.
15) Lavater, Johann Caspar. Physiognomische Fragment zur Beförderung der Menschenkenntnis und Menschenliebe. Berlin, Leipzig und Winterthur, pp.234-238, 1984.

로 감각되지 않는 인간이 주요 성격을 말한다.

이와 같이 명확히 구분되는 두 관계는 직접적이고 필연적 연관을 가지며 필연적 결과로서 나타난다. 밖을 통해 안을 인식하는 이러한 해석학적 구상은 인간의 얼굴이라는 가시적 대상을 하나의 기표(signifier)로서 기의(signified)인 비가시적 정신영역을 지시하며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 즉 얼굴과 정신은 직접적이고 불가분하게 통일되어 하나의 기호를 이룬다. 이러한 라바터의 구상은 당시 자연과학 철학의 사조와 관련 깊다. 라이프니츠의 선형태론 'Praformationsleher' 통해 잘 나타나는데, '유기체의 모든 형태는 이미 싸이나 정자 내부에서 완전히 결정되며, 유기체의 성장이란 이 형태의 크기가 커지는 것 뿐이다. 이로써 그 어떤 외부적 조건이 생물의 형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거부된다'. 이와 같은 생물학적/기호학적 구상은 '단자론(單子論, Monadenlehre)'과 같이한다. 또한 라바터의 관상학이 지니는 '균형, 아름다움, 이상'은 종교적 특히 윤리성과 긴밀하게 연관되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원형상에서 최고의 도덕성과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다. 도덕적 아름다움과 육체적 아름다움의 조화를 통해 윤리적 차원과 미감적 차원의 완전한 조화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라바터는 인간 얼굴의 외적 형상(기표; signifier)에서 종교적으로 설정된 텍스트적 의미(기의; signified)를 해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피테에 의해 관상학적 독해는 해석학적 독해를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적 기표(signifier)들의 상호지시관계와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 간의 쌍방향적 관계를 설명하였다¹⁶⁾.

이렇듯 서양의 관상학은 인간의 내면적 성향을 외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성품을 나타내는 외양인 눈, 코, 입, 등과 같이 지극히 개별적인 상태로 고찰되었으며 움직임이 배제된, 고정된 상태로서의 '보이는' 타고난 육체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품'도 주로 타고난 본성으로 간주되어서, '감정

'이라는 것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은 한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슬퍼하는 경향을 농후하게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것으로 이처럼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들을 바꿀 수 없이 이미 주어진 신체적 특징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외양을 통해 파악하는 내면이란 '감정'이 아닌 '본성'만을 주로 일컫는 것임을 나타낸다.

관상에 있어서 얼굴은 그 무엇보다 중요성과 대표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얼굴'은 관상학적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미학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은 '얼굴의 미학적 의미'(Die Aesthetische Bedeutung des Gesichts, 1901)에서 인간의 얼굴이 조형 예술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으며, 인간 신체 중에서 얼굴이 내적 통일성을 보여주는 가장 외적인 척도라고 말하고 있다¹⁷⁾. 심리학자 '비키 브루스(Vicki Bruce)'는 '인간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생아는 첫 9분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 얼굴과 비슷한 형태에 더 시선을 고정한다'. '인간은 얼굴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에 태어난다.' 고 말했다¹⁸⁾.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얼굴 속에 들어 있는 정보 성별, 인종, 연령 등 감정이나 심리상태 등의 내면적인 정보까지를 통해 선입관을 갖는다. 그러나 상대의 성격이나 인품을 이해해 감에 따라 인상이 변해 때로는 얼굴의 형태가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다. 이것은 관상의 판단에 있어서도 얼굴의 형태가 아닌 상대적 미적 판단의 대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개인이 갖는 미적 태도는 같은 개인이라도 시공간에 따라 다르고, 생활환경과 경험의 축적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⁹⁾. 인간이 갖는 미에 대한 아름다움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름다움 것이며 대상마다 다

16) 한철. 얼굴과 문자 -18세기 독일 관상학의 기호론적 구상들. 독일어문학 44:201-223, 2009.

17) 이선희. 한중 '얼굴'의 의미확장과 개념화 양상. 中國語文學 55:411-438, 2010.

18) 우리히 렌즈. 아름다움의 과학. 서울, 프로네시스, pp.24-26, 2008.

19) 오주영. 한국의 미의식에 의한 장승의 조형성 연구 : 자수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8.

른 성격을 띤다²⁰). 미를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적 대상의 형상의 심미성부터 인간의 내적 욕망과 사회성까지 미의 한 요소 보는 점이다²¹). 단편적인 의미로서의 미가 아닌 인간 자체에 내재된 심미적, 사회적 성질이 혼합된 본질적인 가치 체계를 이루는 총체적인 요소들에 대한 사고의 결과일 것이다²²). 이렇듯 미(美)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 변해오는 것으로 내재된 미의 본질에 대한 정의 또한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²³).

아름다운 얼굴, 미(美)의 상대적 기준은 인류학, 진화 심리학, 윤리적 문화적 해석 등 다양한 입장으로 ‘아름다움’을 논하지만 무엇이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동일한 미감(美感)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현대에 와서 얼굴이 갖는 위치는 더욱 극명하게 보여진다. ‘대니얼 맥닐(Daniel McNeill)’ 따르면 오늘날 미국인의 2% 정도가 ‘추모(醜貌) 공포증’이라 불리는 ‘신체이형 장애(BDD, Body Dysmorphic Disorder)’를 앓고 있다.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전 사회구성원이 앓고 있는 이 증세 때문에 성형외과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²⁴).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외적인 아름다움의 정의와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형이 존재한다. 인체의 외형은 대칭이고 장기는 비대칭으로 인간의 신체는 대칭을 지향하는 비대칭이다. 균형이 맞는 황금비율의 얼굴이란 대개 수직으로 보았을 때 이마의 헤어 라인의 정점과 인중과 코끝이 만나는 점, 여기서 턱까지의 거리를 삼등분했을 때 이 거리들이 같은 얼굴을 말한다. 얼굴형, 얼굴의 비율, 각 부위의 위치, 크기, 모양의 순으로 큰 틀부터 작은 것들 순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조화와 균형이다. 이상적인 얼굴은 안정

적인 비례와 균형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황금분할(Golden Section) 또는 황금비율(Golden Ratio)은 오랜 역사를 가지며, 여러 예술작품을 통하여 잘 나타내고 있다. 얼굴에 대한 종교적·문화적 이미지들, 관상학과 독심술, 화장법과 성형수술 등은 ‘아름다움’에 이르는 얼굴에 대한 기준이 문화적 산물임에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선(善)에 대한 구별이 내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의 망진

한의학에 있어서 환자를 진단하는 망진(望診)은 사진(四診)의 하나로서 자신의 시각을 이용하여 환자의 病因(병인), 병정(病情), 병기(病機)를 파악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외부를 관찰하여 병변(病變)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難經 六十一難』에 ‘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脈而知之謂之巧’라고 하여 망진을 진단의 가장 높은 경지로 표현하였다. 시각을 통한 환자의 체형과 체질에 대한 관찰과 색과 神氣의 發顯程度에 대한 觀察이 진단의 기본 진료가 되므로 망진이 사진의 최고로 꼽았다.

한의학에서 인체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각각의 부분은 자신만의 독특한 機能을 수행하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체는 경락에 의하여 내외가 상통하고 있으며 오관과 오체 등 인체의 외형은 내부 장기의 氣機 흐름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靈樞 本藏篇』에 ‘밖으로 그 발현된 것을 보아서 內臟을 알 수 있으니, 病所를 알 수 있다’ 하였다. 또한 『丹溪心法』에서 ‘그 내부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그 외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외부를 진단하면 그 내부를 알 수 있다. 무릇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들어난다’고 하였다²⁵).

『黃帝內經』에는 望診과 관련하여 사람의 신(神), 색(色), 형(形), 태(態)를 관찰하는 것으로 신(神)은 정신과 의식활동을 표현하는 것이고, 색

20) 고바야지 신지, 김경자 역. 무용미학. 서울, 현대미학사. pp.332-334, 1983.

21) 김익달. 철학과 사진. 서울, 학원사, p.375, 1970.

22) 강신. 모델의 미적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4.

23) 오병남. 미술교육과 미학. 美術史學 2(1):49-60, 미술사학회지, 1988.

24) 대니얼 맥닐. 얼굴(THE FACE). 서울, 사이언스북스, p.136, 2003.

25) 김광호. 시간성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안면망진의 원리.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7(1):387-409, 1998.

(色)은 피부의 빛깔과 광택의 변화를 보는 것이며, 형(形)은 형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태(態)는 동태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로 드러난 정보와 내부에 간직된 臟腑 상태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에서도 임상에서 진단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⁶⁾.

특히, 頭面은 머리, 안면, 눈썹, 코, 입술, 이, 눈, 귀, 인중 등의 부분을 포함하는데, 인체에서 가장 드러난 곳이다. 또한 陽氣가 집중된 곳이며 인체의 經氣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게 내부를 반영할 수 있다²⁷⁾.

『靈樞 邪氣臟腑病形』에 따르면, “12경맥과 365락맥의 혈기는 모두 얼굴로 올라가 얼굴의 감각기관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 정미로운 양기는 눈으로 들어가 밝게 보고 그 나누어진 기는 귀로 들어가 듣게 되며 중기는 코로 들어가 냄새를 맡고 탁기는 위장에서 나와 혀와 입으로 들어가 맛을 본다”고 하였다²⁸⁾. 몸을 흐르는 혈기 중 가장 정미로운 기는 눈으로 들어가 정확하게 사물을 보게 하고 그 다음으로 정미로운 기가 귀로 들어간다. 즉 눈은 오장육부의 정미로운 기와 경락의 혈기 중 역시 정미로운 기가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한 장부의 기만 모이거나 혹은 보다 덜 정미로운 기가 모이는 다른 감각 기관인 귀나 코, 입과는 구별된다. 이렇듯 인체에 있어서 얼굴이 갖는 한의학적 중요성과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다.

『史記』의 편작창공열전(扁鵲倉公列傳)에서 편작(編鵲)의 투시를 망진(望診)이라고 보는 것도 한의학의 인체관과 부합하기 때문인데, 몸 속의 상태는 늘 몸 겉으로 드러난다는 한의학의 기본 시각으로 보면 몸에 드러난 신색형태(神色形態)를 보고 몸 속을 안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투

시일 것이다²⁹⁾. 편작이 망진을 통하여 진단하는 것 또한 몸에 대한 통찰을 인하여 가능한 것이며 그 통찰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심신의 눈으로 본 것이다. 이렇듯 망진(望診)은 몸을 뚫고 그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기(氣) 흐름의 이상 여부를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 관찰자의 심신은 정기나 혈기가 충만해야 인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관찰자의 마음인 심(心)과 의지를 가진 신(神)은 모두 더불어서 사물을 보는데 심과 신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역시 오류가 생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역시 의사는 신(神)이 충만해야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망진(望診)은 환자의 신색형태(神色形態)를 관찰한다. 환자의 전신, 동작, 분비물 등을 관찰하고 특히 얼굴을 통하여 환자의 신(神)을 보는 것이다. 망진(望診)은 환자의 신색형태를 통해 드러나는 신(神)을 의사의 눈에 깃든 신(神)으로 인식하는 진단법이다. 몸 속의 상태를 망진(望診)을 통해 순식간에 알아내는 의사가 바로 신의(神醫)인 것이다. 한의학의 이러한 시각은 단지 얼굴의 형태와 조합만을 보고 판단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기(氣)를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인간의 판단에 있어서 바른 심신을 갖는 것은 선입견이나 경험에 따른 조합이 아닌 바른 선정(禪定) 통하여 망진(望診)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동양에서 시각은 단지 보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다. 한자 표현인 ‘見聞’은 단순히 보고 듣는 행위를 가리키는 ‘視聽’이란 말과 달리 사물을 이해하여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코와 입으로 냄새 맡고(숨쉬고) 맛보는(먹는) 것이 생명의 기본적 본능적 감각이라면, 보고 듣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높이려는 이성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냄새 맡고 맛보는 감각도 사물을 분별하지만 특히 보고 듣는 것은 사물에 대한

26) 김경철, 이용태. 내경에 나타난 국소 부분 망진에 대한 연구. 동의한의연구 4:39-58, 2000.

27) 양력. 중의질병예측학. 서울, 법인문화사, pp.264-266, 2001.

28) 배병철. 금석황제내경. 서울, 성보사, pp.58-60, 1995. [靈樞 邪氣臟腑病形 第四] :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 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 其別氣走於耳而爲聽, 其宗氣上出於鼻而爲臭, 其濁氣出於胃, 走唇舌而爲味.

29) 락노규. 감각과 신체 - 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시각의 문제. 의철학연구 3:77-95, 2007.

인식에서 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³⁰⁾. 黃帝內經은 눈을 命門이라 부르기도³¹⁾, 하는데 여기서 명문은 말 그대로 생명의 문, 생명의 기운이 드러나는 문이라는 뜻이다. 눈을 생명의 문이라고 한 까닭은 『靈樞大惑論』에는 “오장육부의 정기는 모두 위로 눈[目]으로 흘러들어가는[睛]이 되니 정기의 집이 눈[眼]이다. 뼈의 精은 눈동자가 되고 근(筋)의 정은 검은자위가 되고 피의 정은 혈관(絡)이 되고 기의 정은 흰자위가 되며 살의 정은 눈이 빠지지 않게 구속한다[눈꺼풀]. 힘줄, 뼈, 혈, 氣의 精 전체는 맥과 더불어 목계(目系)가 되며 목계는 위로는 뇌에 연결되고 뒤로는 뒷목 가운데로 나온다”³²⁾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明代『醫學入門』³³⁾ 또는 朝鮮의『東醫寶鑑』³⁴⁾ 보면 眼部에 五輪八廓이라고 하여 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다. 五輪은 눈과 눈 주변 부위를 五行으로 분류한 것이고, 八廓은 눈과 눈 주변 부위를 八卦로 분류한 것이다. 즉 五臟六腑의 精氣가 모두 눈으로 올라오므로 눈을 분석해서 장부지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눈은 五臟과의 배속 관계에서 肝과 연결된다. 눈은 간, 혀는 심장, 입은 비장, 코는 폐, 귀는 신장에 속한다. 한의학에서 五官은 몸의 부분으로서 五臟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또한 각각 배속되는 五臟의 氣를 받아 기능한다. 그런데 유독 눈은 五臟六腑 전체와 관계를 가지며, 더욱 특이한 점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기능이 五臟六腑의 정미로운 氣 모두와 관련된다는 점이다³⁵⁾.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 사상에 있

어서 특히, 눈을 통한 정보의 습득과 처리는 단지 외부 정보의 단순한 습득 이상의 의미와 직관력을 의미하였다.

미의 관점으로 본 관상

관상에 있어서 그 의미를 내면적 의미로 찾다고 해도 얼굴의 대한 미적 판단에 의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느끼는 미적 아름다움 특히, 시각에 의한 얼굴에 대한 아름다움의 척도와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관상의 이해와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이를 위해 동서양이 갖는 미학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에스테틱’은 어원적으로 ‘아이스테시스’에 기원은 바움가르텐이 제시했던 ‘아이스테시스(Aisthesis)’ 개념으로 미적 판단에서 감각적 인식 그 자체의 고유한 완전성을 위해 감각적 지각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능력, 특히 가장 직접적이고 원본적인 활동인 지각에 대한 연구로 감각적 세계 또는 이미지의 세계의 탐구와 맞닿아 있다. 시각이나 시선으로서의 지각은 가장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행위로서 인간은 시각을 통해 외부세계로부터 대부분의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현실감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지와 시선은 그 속에 놓인 세계관계를 지각학적으로 다룬다는 것으로 감각지각으로서의 근원성의 의미와 성격을 그 자체로 현상학적으로 밝히는 일과 다르지 않다³⁶⁾.

서양에서 시각적 지각을 지배해 온 전통적이고도 근본적인 존재방식 또는 사고의 패러다임은 플라톤의 관조방식(theoria), 칸트의 관찰자 관점(observation)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플라톤은 시각에 의해 지각된 현상을 변화하는 것으로 폄하하고 불변하는 실체와 분리할 수 있는 사물의 동일성 원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시선을 정신화하여 영원한 대상을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각 속에 드러난 대립은 극복되지

30) 락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의철학연구 3:77-95, 2007.

31) 배병철. 금석황제내경. 서울, 성보사, p.78, 1995. [靈樞根結]: 命門者 目也.

32) 배병철. 금석황제내경. 서울, 성보사, p.138, 1995. [靈樞大惑論]: 五臟六之精氣 皆上注於目而爲之精 [睛] 精之爲眼.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絡 其氣之精爲白眼 肌肉之精爲約束 筋骨血氣之精, 而與脈并爲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33) 이천. 편주의학입문(영인본). 서울, 대성문화사, pp.364-367, 1989.

34) 허준.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pp.521-524, 1999.

35) 락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

의 문제. 의철학연구 3:77-95, 2007.

36) 김희봉. 시선의 미학: 시선에 관한 현상학적 반성. 철학연구 89:1226-1237, 2010.

못했다. 이것이 신적 차원에서 동일한 사물의 질서를 바라보는 관조의 방식이었다. 칸트는 외부 세계에 대해 인간의 시각능력이 지닌 권한을 과도하게 확신하여 인간 주체의 자율적 요구는 인식 주관과 대상 객관의 구분을 초래했고, 인간 이성은 상상력에 의거해 통합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주관적 통합에 머문 이러한 시도에는 대상을 우리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다는 관찰자적 관점으로 이해하였다³⁷⁾.

이처럼 서양에서의 아름다움은 시선이 갖는 인식의 철학 범주로 설명하였으며, 미적 판단에서 있어서도 감각적 인식 그 자체의 지각을 의미할 뿐 절대적 미의 기준은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미적 가치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그것은 대상의 성질이나 형태, 그리고 주체의 태도나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조화와 통합을 통해서 미의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양에서의 근원적인 미는 외부에 있는 것과 내재해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양의 관상학에 있어서도 신체의 세세한 부분의 생김새를 두고 성격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각 부분의 생김새는 타고나는 성격을 설명하였다. ‘라바터’는 관상학을 인간의 외면을 통해 내면을 인식하는 것으로 안과 밖의 명확한 구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밖으로 드러나는 자연의 가시적 영역인 표면, 육체, 작용의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직접적인 시선을 벗어나는 내용, 정신, 힘이 숨어있으며 구체적인 관상학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인간 외형의 비례, 윤곽, 조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감각되지 않는 인간이 주요 성격까지도 탐구하였다.

동양에 있어서 아름다움은 ‘자연’이라 할 만큼 자연을 최고의 미로 숭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음과 시각적 미의 판단을 하였다. 동양적 사유구조에서 보면 몸은 마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심신일원론이 적용된다. 몸을 마음과 연계

37) 김희봉. 시선의 미학: 시선에 관한 현상학적 반성. 철학연구 89:1226-1237, 2010.

하여 이해할 때 선후본말이나 가치론적인 측면에서 몸보다는 마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身心一如와 心物合一을 말한다.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경우에도 天人無間, 天人合一, 天人一體를 말한다³⁸⁾.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은 주역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易學은 수천년에 이르는 동아시아 문화의 발전 과정 속에서 우주 운행의 원리 또는 만물 현상의 변화를 진술하는 등 인간의 사유와 생활 속에 깊이 침투되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哲學, 天文學, 醫學, 文學은 물론 藝術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역학의 방원구조는 하늘과 땅이라는 전통적 사유구조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현상적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런 점에서 역학은 예술이란 용어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방원 구조에 고도의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며 미적 사유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역학 전반에서 논의된 象과 數의 상징적 기호와 의미는 존재와 사유의 원리로 각 요소들을 무한히 변환하게 하는 창조적 구조를 이룬다. 특히 동아시아의 고대 우주관 또는 역학적 구조에서 비롯된 ‘天圓地方’, ‘河圖洛書’, ‘方圓規矩’라는 개념은 역학적 원리에 근본 한다. 이들의 형상과 사유구조는 방원구조에 심미형상뿐 아니라, 팔괘와 아홉 개의 문장은 서로 표리를 이룬다.”³⁹⁾고 하였다. 방원의 형상은 天과 地, 河圖와 洛書, 八卦와 九疇, 常과 變, 經과 緯, 表와 裏라는 대대관계를 표상한다. 朱子가 표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二元的 구조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상호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그 상반성을 매개로 하여 서로를 성립시켜 준다는 의미이다⁴⁰⁾.

『周易』「繫辭傳」에 “易은 象이니, 象은 본뜬 것이다”⁴¹⁾라고 하여 象은 천지만물의 관찰을 통해

38) 조민환. 유가미학에서 바라본 몸. 동양철학연구 18:429-457, 1998.

39) 주희 저, 김진근 역. 완역 易學啓蒙. 서울, 청계, p.225, 2008. 劉歆云...河圖洛書相爲經緯, 八卦九章相爲表裏.

40) 김현숙. 篆刻의 方圓에 관한 周易美學의 研究. 동양철학연구 60:340-367, 2009.

41)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서울, 한길사, p.132, 1997.

서 나온 것임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자는 “易은 卦의 형상이요 이치와 비슷한 것이다.”⁴²⁾고 하여 卦의 형상이 천리의 본원적 이치를 반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周易』「繫辭傳」에는 “옛날에 包犧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 우러러 보아서는 하늘에서 象을 관찰하고, 굽어서는 땅에서 법을 관찰하였다. 새와 짐승의 무늬와 땅의 조리를 관찰하고, 가깝게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物에서 취하여, 이에 비로소 八卦를 만들었다.”⁴³⁾고 한다. 또 “우러러서는 天文을 관찰하고 굽어서는 地理를 살핀다. 그러므로 幽明의 원인을 안다.”⁴⁴⁾고 말한다. 여기서 ‘觀象於天’은 天文의 象을 관찰한다는 것이며, ‘觀法於地’는 地理의 法을 살핀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자(朱子)는 “이것은 이치를 궁구하는 일이다. 이는 성인이 易의 書를 이용한 것이다. 易은 陰陽일 뿐이니 幽明, 生死, 鬼神은 모두 음양의 變이고 천지의 道이다. 天文은 晝夜와 上下가 있으며, 地理는 南北과 高深이 있다”⁴⁵⁾고 한다. 이들 요소는 구체적인 物象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에 내재된 구조와 변화, 유행의 원리를 체현함으로써 예술적 형상을 형이상학적인 철학의 세계로 승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周易』의 ‘천지자연의 사물을 보고 象을 취한다.’는 觀物取象의 사유에서의 상은 ‘본 뜬 것’⁴⁶⁾으로 이 상은 바로 인간의 심미적 미감을 창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상징

성은 동양에서 관상학을 통해 보여주는데, 얼굴의 균등과 조화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내면적 심성까지 파악하려 하였다. 즉 아름다움은 균등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이며 이것은 자연스러움의 미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동서양의 미학

인간의 아름다움은 변함없이 삶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 못지 않게 비물질적인 개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을 지니는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의 한 부분으로도 비중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미적 감각에 대한 인간의 지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전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과 인류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현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⁴⁷⁾. 이런 점에서 볼 때 미적 추구라는 인간 행동의 중요한 현상은 그 역사적 기원이 매우 뿌리 깊고, 또한 전 인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⁴⁸⁾.

미학(Aesthetik)은 오늘날 아름다움과 예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서구적 관점을 보면 철학이론과 예술이론, 자연미 이론을 종합하면서 서술되고 있다. 일반적인 미학 이론으로는 헤겔의 미학, 산타나야의 미감, 텐느의 예술철학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레싱의 라오콘, 버크의 숭고미, 보링거의 추상과 감정 이입,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한슬리크의 음악미론 등이 있다. 서구 문화의 미적 관심은 역사적 현실과 관계 전체에 이르는 사상사적 사색의 형태로서 한 시대의 예술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학에 대한 입장은 어떤 대상에 대해 개별적인

【繫辭傳 下3章】：易者象也象也者像也。

42)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서울, 한길사, p.135, 1997.

【繫辭傳 下3章 本義】：易卦之形理之似也。

43)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서울, 한길사, p.130, 1997.

【繫辭傳 下2章】：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仰則觀象於天，俯則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近取諸身遠取諸物，於是始作八卦。

44)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서울, 한길사, p.96, 1997.

【繫辭傳 上4章】：仰以觀於天文，俯以察於地理，是故知幽明之故。

45)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서울, 한길사, p.98, 1997. 『

周易』【繫辭傳 上4章 本義】：此窮理之事以者聖人以易之書也易自陰陽而已幽明生死鬼神皆陰陽之變天地之道也天文則有晝夜上下地理則有南北高深。徐上達。印法參同：篆刻有方有圓…朱文多用圓白文多用方。其白者字畫向背又自有方圓。

46)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서울, 한길사, p.132, 1997. 『

周易』【繫辭傳 下3章】：易者象也象也者像也。

47) 김용권. 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선, pp.42-44, 2003.

48) 김명희, 윤천성. 현대미학의 미적 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15(2):483-493, 2009.

고 개념적인 이해를 넘어 대상의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서구적 미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⁴⁹⁾.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Plato, BC 428/427 ~ BC 348/347)은 『대히피아스(Hippias Major)』 편에서 미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내용에서 소크라테스는 그의 능란한 언어적 방법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아름다운 것들은 파악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미학은 아름다움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모른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지만, 구체적 실체로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로 표현되는 아름다움의 차이,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층위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한 전제하에서 미학적 논의를 출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가 아주 폭넓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⁵⁰⁾.

이와 같이 고대 서양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색은 부분적인 것으로 그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성찰이 이루어진 것은 근대철학에 와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움가르텐’의 미학은 이성보다 저급하나 이성적 논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감정이나 정서가 논리적 체계를 갖출 때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⁵¹⁾. 즉 미적인 것을 다루는 논리로서 정서와 감정을 감성적 논리가 미학이다. 따라서 이 학문은 수사학이나 시학보다 넓은 범위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술에 대해 공통적인 논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았다. 당시에 과학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 예술이라는 입장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와 같은 비평적 인식이 학문의 영역에 포

함되는 것의 필요성이 ‘미학’적 접근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미학은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의 추구와 미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⁵²⁾. 이러한 미적 가치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것은 대상의 성질이나 형태, 그리고 주체의 태도나 활동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조화와 통합을 통해서 미의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체의 의식을 초월하여 그 외부에 있는 것과 내재해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볼 수 있는 것까지를 서양미학이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현대철학 이전까지의 미적 인식에 대한 정리이다⁵³⁾.

반면 동양에서의 미는 아름다움에 대한 동양적 가치관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으로써 菜根譚의 ‘花居盆內終乏生機 鳥入籠中 便減天趣’으로 ‘꽃이 화분 안에 심어지면 마침내 생기를 잃게 되고, 새가 새장에 갇히면 바로 천연의 운치가 감소된다’는 내용은 자연주의 미학의 한 단면으로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道德經』‘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악한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道德經』‘信言不美美言不信’ 언어에 대한 지적으로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만은 않고 아름다운 말에는 대개 진실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본래의 뜻이다⁵⁴⁾. 다만 여기서 아름다움을 초점에 놓고 해석을 시도한다면 역시 형식 보다는 내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미학 철학자 리택후(李澤厚)는 미(美)의 근원을 ‘자연의 인간화, 그리고 인간의 자연화’라고 규정한다. 그는 1962년 그의 저서 『미학의 3가지 논제(美學三題議)』에서 자연의 인간화에 대해 주장하면서 미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고 ‘자연의 인간화’로부터 미의

49) 김용권. 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선, p.65, 2003.

50) 김명희, 윤천성. 현대미학의 미적 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15(2):483-493, 2009.

51) 김용권. 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선, p.36, 2003.

52) 김용권. 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선, p.136, 2003.

53) 김명희, 윤천성. 현대미학의 미적 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15(2):483-493, 2009.

54) 노재욱. 노자 도덕경. 서울, 자유문고, p.223, 1994.

본질 혹은 근원을 탐구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인간화만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서구 중심의 기계론적 결정론에 봉착하고 마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인간의 자연화’의 명제를 제시한다. 인간의 자연화는 자연의 인간화의 대응물이며, 전 역사과정의 양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연화는 세 가지의 단계적인 차원을 포함한다. 미(美)의 본질로서 ‘자연의 인간화, 인간의 자연화’는 바로 동양적 사유의 핵심인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의미한다⁵⁵⁾.

이렇듯 동양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미학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학’이라는 명확한 영역을 갖지 않는 것은 객체의 차원에서 객관 사물은 인식할 수 있으나 그것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고의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즉 아름다움을 파악하거나 체험하면서도 미의 본질을 추구하지는 않았고, 언어를 사용한 공리나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도 없었으며, 그 본질을 핵심으로 하는 미학의 체계화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⁵⁶⁾.

Ⅲ. 결 론

망진과 관상학은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보다 깊은 내면적 성질과 체질 또는 질병 까지도 판단하고 그 근원과 분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발전되어 왔다. 인간은 우리의 감각 특히 시각을 통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고대 중국에서 시각은 단지 사물의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인식한다는 통찰의 의미로 사용된다. 한의학에서도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망진은 단순한 시각적 봄이 아니라 몸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행위이다. 황제내경에서는 ‘망진(望診)’을 최고 수준의 의자가 갖는 덕목으로 마음과 마음 내재되어 있는 신(神)을 통

한 오장육부의 정기나 경락의 혈기에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 있어서 망진은 환자의 진단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여러 치료과 처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망진 또한 한의사의 주관적 사고관에 의한 판단에 따르므로 선입견과 같은 영향을 받아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곧 각 개인이 갖는 미적 판단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의사의 망진은 무엇보다 개인이 갖는 미적 판단의 기준과 영향을 정립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판단에 있어서 바른 심신을 갖고 바른 선정(禪定) 통하여 망진(望診)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관상에 있어서도 그 판단의 기준은 아름다움의 척도로서 작용한다. 특히 서양 관상학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외형보다는 내재된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해도 실제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결국 내적 아름다움과 동일시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객관적 주관적 기준을 포용함으로써 인간이 갖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관상으로도 나타내었다. 인간의 외면을 통해 내면을 인식하는 것으로 안과 밖의 명확한 구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밖으로 드러나는 자연의 가시적 영역인 표면, 육체, 작용의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직접적인 시선을 벗어나는 내용, 정신, 힘이 숨어있으며 구체적인 관상학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인간 외형의 비례, 운곽, 조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감각되지 않는 인간이 주요 성격까지도 탐구하였다.

동양의 대표적인 관상서인 『麻衣相法』은 중국의 고대로부터 전래되어 온 『周易』의 상수역학과 道家·佛家에 기반을 두고 있어 주역에 나타난 역학의 방원구조로 하늘과 땅이라는 전통적 사유구조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현상적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방원구조에 고도의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며 미적 사유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易學은 수 천년에 이르는 동아시아 문화의 발전 과정 속에서 우주 운행의 원리 또는 만물 현상의 변화를

55) 박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의철학연구 3:77-95, 2007.

56) 김명희, 윤천성. 현대미학의 미적 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15(2):483-493, 2009.

진술하는 등 인간의 사유와 생활 속에 깊이 침투되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哲學, 天文學, 醫學, 文學은 물론 藝術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동아시아의 고대 우주관 또는 역학적 구조에서 비롯된 ‘天圓地方’, ‘河圖洛書’, ‘方圓規矩’라는 개념은 역학적 원리에 근본으로 한다. 이처럼 동양에서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관상과 미를 따르려 하였다. 또한 그 판단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미적 아름다움은 시각적 산물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것은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좋음과 나쁨처럼 판단의 시작으로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인간이 갖는 시선의 추구는 단지 개개인의 취향이 아닌 공통된 미적 성향을 갖게 된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아름다움이란 자연을 뜻함에 따라 인간의 얼굴에 있어서도 자연의 조화로서 아름다움으로 조화와 균형을 선한 것과 아름다움을 동일시 하는 철학적 사유관이 나타내었다. 특히, 자연주의 미학으로서 인지할 뿐 시각적 아름다움을 논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관상학에 있어서 역학의 철학적 사고에 따라 인간의 얼굴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란 도덕적 아름다움과 육체적 아름다움의 조화를 통해 윤리적 차원과 미감적 차원의 완전한 조화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참고문헌

1. 김경철, 이용태. 내경에 나타난 국소 부분 망진에 대한 연구. 동의한의연구 4:39-58, 2000.
2. 김정현.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 서울, 동학사, 1999.
3. 王浩, 구중희 옮김. 역리학의 이해. 서울, 생명출판사, 2006.
4. 최화정. 『마의상법』의 이론적 고찰 : 마의상법의 석실신이부, 금쇄부, 은시가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08.
5.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著, 김희경 譯. 朝鮮의 占卜과 豫言. 서울, 동문선, 1991.
6. 진희이 저, 최인영 역. 麻衣相法. 서울, 상원문화사, 2010.
7. 설혜심. 16.17세기 영국 관상학의 사회적 기능과 변천. 역사민속학 7:207-226, 1998.
8. Lavater, Johann Caspar. Physiognomische Fragment zur Beforderung der Menschenkenntnis und Menschenliebe. Berlin, Leipzig und Winterthur, 1984.
9. 한철. 얼굴과 문자 -18세기 독일 관상학의 기호론적 구상들. 독일어문학 44:201-223, 2009.
10. 이선희, 한중 ‘얼굴’의 의미확장과 개념화양상. 中國語文學 55:411-438, 2010.
11. 우리히 렌츠. 아름다움의 과학. 서울, 프로네시스, 2008.
12. 오주영. 한국의 미의식에 의한 장승의 조형성 연구 : 자수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8.
13. 고바야지 신지, 김경자 역. 무용미학. 서울, 현대미술사, 1983.
14. 김익달. 철학과 사진. 서울, 학원사, 1970.
15. 강신. 모델의 미적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04.
16. 오병남. 미술교육과 미학. 美術史學 2(1):49-60, 미술사학회지, 1988.
17. 대니얼 맥닐. 얼굴(THE FACE..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3.
18. 김광호. 시간성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안면망진의 원리.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7(1):387-409, 1998.
19. 양력. 중의질병예측학. 서울, 법인문화사, 2001.
20. 광노규. 감각과 신체-고대 중국의학에서 신체 지각의 문제. 의철학연구 3:77-95, 2007.
21. 배병철. 금석황제내경. 서울, 정보사, 1995.
22. 이천. 편주의학입문(영인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23. 허준.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1999.
24. 김희봉. 시선의 미학: 시선에 관한 현상학적 반성. 철학연구 89:1226-1237, 2010.
25. 조민환. 유가미학에서 바라본 몸. 동양철학연구 18:429-457, 1998.
26. 주희 저, 김진근 역. 완역 易學啓蒙. 서울, 청계, 2008.
27. 김현숙. 篆刻의 方圓에 관한 周易美學的研究. 동양철학연구 60:340-367, 2009.
28.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서울, 한길사, 1997.
29. 김용권. 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문선, 2003.
30. 김명희, 윤천성. 현대미학의 미적 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미용학회지 15(2):483-493, 2009.
31. 노재욱. 노자 도덕경. 서울, 자유문고, 1994.